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이진숙 수산나, 이제니수 로사
 다음주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조은경 수산나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70
 교무금: \$ -

 합 계: \$ 170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들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나눔이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달아 봅시다. /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다른 이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 내가 먼저 얻은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갖는 것…… / 나는 나눔 것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 그러고 보니 나눔 것이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 <중략> / 나누면서 제가 더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 제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고 / 자꾸만 자꾸만 나눔 것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가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제로 기억하는 이태석 신부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신부님은 아프리카 톤즈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시면서, 가진 것을 나눔수록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것을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남 줄 것이 어디 있느냐.’는 볼멘 대답처럼 들립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나 있습니다.’는 크게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 ‘물이 반병밖에 없네.’ 하고 걱정하는 것과 ‘아직도 반병이나 남았네.’ 하고 여유를 갖는 것에서 느끼는 차이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빈곤하게도 합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18 주일]

2011 년 7 월 30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55,1-3

<제 2 독서> 로마서, 8,35,37-39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복음, 14,13-21
 그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21 봉헌: 221 성체: 164 파견: 437



생명의 말씀

빵이요~

튀밥 장수가 빵튀기할 준비를 합니다. 주변의 아이들은 귀를 막고 기다립니다. 튀밥 장수의 외침과 함께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예전 장터에서 주전부리를 위해 튀밥을 튀기던 흔하게 보던 풍경입니다. 쌀이나 강냉이를 넣어 빵튀기 기계를 빙빙 돌리다가 어느 정도 달궈져 적당한 시간이 되면 빵이요~~ 라는 외침과 함께 쌀, 강냉이가 몇 배나 부풀려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지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봉지에 담겨져 빵튀기 기계에 들어간 쌀이 요술 상자 같은 빵튀기 기계 안에서 어느새 큰 부대에 담아야만 할 만큼 커진 것이 마냥 놀라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천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오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그 적은 양의 음식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봉헌한 작지만 소중한 빵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을 거쳐 엄청나게 불어났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 신기하게만 보였던 튀밥 장수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헌물을 받으셔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부풀려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하찮고 작은 봉헌물이지만 예수님은 그 미약한 제물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더 테레사의 작은 희생, 아프리카 톤즈라는 작은 마을에서의 이태석 신부님의 보이지 않는 봉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이끌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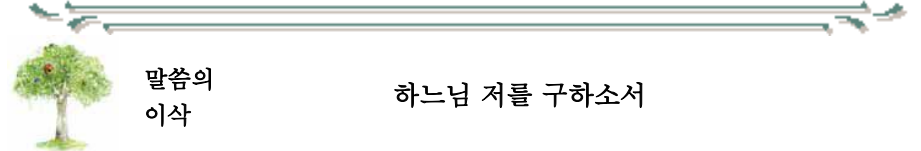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마태 13,31-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은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 나라의 신비입니다. 비록 작고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온전히 그분께 봉헌할 때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큰 당신의 도구로 써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크게 보아주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화려하고 큰 봉헌을 바라지 않으시고 초라하고 작지만 정성스럽고 온전하게 봉헌한 우리의 제물을 어여뵈 보아주십니다.

오늘도 나는 턱없이 부족한 나의 제물을 가지고 그분께로 가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손에 나의 작은 제물을 받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튀밥 장수의 외침이 오늘은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듯합니다. 빵이요~~!!!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공지사항

- 현재 성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무금 납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액수보다는 지속적으로 납부해주시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캠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ine Lake Camp 사진을 성당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며칠 전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온 세상이 울음이라는 듯 그 여성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저도 더 견디면 선생님처럼 좋은 날이 올까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그 여성은 지금 스무 살의 아들이 산소 호흡기를 몸의 일부로 산지가 1년이 넘는 어머니였다. 이런 어머니에게 “그래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나는 말해야 할까. “그래도 견디라고 그것이 어머니”라고 나는 말해야 할까. 나는 딱 부러지게 그 어머니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그 어머니도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오는데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포기과 자학을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아들 사랑으로 그 모든 괴로움과 내상을 참고 견디며 산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자신만이 세상에서 내몰린 궁극의 외로움으로 기진할 것이다. 극도의 외로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다. 주님께서도 그랬다.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차라리 결의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보다 더 외로웠을 것이다. 성모님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네”하고 대답했지만 요셉의 이해도 주변 사람들의 이해도 받지 못했을 때 성모님의 외로움은 그 어디에도 비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의무는 잘된 상황에서 더 잘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잘되게 하려는 의지 앞에 하느님이 계신 것이다. 외로움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이다. 외로움이라는 말은 내게도 늘 구역질을 동반하는 적이다. 너무 외로워 토악질을 할 것 같은 육체적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었다. 그 외로움의 만란 속에서 인간적 이탈위기도 있었지만 늘 그 서늘한 외로움의 마음속에 딱 한 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으로 그 위기를 건너기도 했다. 내 안의 독재와 방탕을 이기는 곳에 늘 하느님이 계셨다. 그것이 내가 사는 생명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외로움을 견디는 다른 일들은 더 높으로 빠져 더 큰 외로움으로 빠지지만 모든 것을 누르고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마음속에는 희열마저 느껴지는 따뜻함,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성당에 가는 마음은 늘 꽃이었으며 돌아가는 발걸음은 늘 열매처럼 달았다. 거룩한 성찬에 초대받고 마음을 열고 나누는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면 거기 바로 내 마음의 평화꽃을 피우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용기이다. 용기를 잃으면 미덕도 없다. 내 정신과 감정은 성숙이 더딘 미숙아지만 그 미숙아적인 철부지를 안아들이는 분은 이 세상 오직 하느님 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병실의 어머니에게 평화가 오기를.

신달자 엘리사벳|시인